

## 아세안 경제공동체 탄생에 대한 기대와 현실

이 총 열\*

### 1. 서론

아세안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등 동남아 5개국의 외교장관들이 1967년 8월 ASEAN 창립선언 혹은 방콕선언(Bangkok Declaration)을 채택함으로써 결성된 것이다. 당시 아세안 국가들은 인도차이나반도의 공산화 위험과 식민지로부터 독립이후 불거진 각국 간의 영토 분쟁 등과 같은 역내 문제해결을 위하여 정치 안보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였기 때문이다.<sup>1)</sup>

\*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경제학과 교수, cllee@korea.ac.kr

1) 아세안의 설립 목적은 방콕선언 제2조의 7개항에 제시되어 있다. 이때 1항 “아세안의 목적은 아세안국가들이 번영스럽고 평화로운 사회 공동체 달성을 위하여 경제성장, 사회진보 및 문화발전을 상호 협력하여 추진한다.” 및 2항 “아세안의 목적은 역내 국가들이 각국의 법률을 준수하고, 유엔헌장의 원칙에 입각하여 역내 평화와 안정을 추구한다.”는 아세안 설립 목적의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아세안의 최초 설립목적이 역내 정치적인 안정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협력이나에 대하여 논쟁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설립 당시 동남아시아의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정치적인 고려사항이 보다 컸었고, 방콕선언의 도입부에 “아세안 외무장관들은 평화와 자유, 사회정의, 및 경제복지 등의 이상실현이 국가 간 협력에 의하여 도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라는 표현이 나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문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CONSCIOUS that in an increasingly interdependent world, the cherished ideals of peace, freedom, social justice and economic well-being are best attained by fostering good understanding, good neighbourliness and meaningful cooperation among the countries of the region, ASEAN, The Asean Declaration (Bangkok Declaration) Bangkok, 8 August 1967, <http://www.asean.org/news/item/the-asean-declaration-bangkok~declaration>)

1990년대 들어 아세안은 정치안보공동체보다는 경제공동체로서의 성격을 보다 강하게 보이기 시작하였다. 당시 공산주의의 몰락과 냉전체제의 종식으로 지역안보문제가 상당 부문 해결되었고, 중국 상품들이 본격적으로 국제시장에 등장하여 아세안 상품들과 경쟁하기 시작하였으며, 우루과이라운드, NAFTA의 탄생 등 각종 국가간 경제협력이 본격화되는 등 주변 환경변화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아세안 각국들은 상호 협력을 통한 경제개발과 효율성 개선에 보다 집중하게 되었고, 이는 역내 경제협력과 경제통합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sup>2)</sup>

아세안의 경제협력 형태는 1997년 12월 아세안 정상들이 ‘아세안 비전 2020 (ASEAN Vision 2020)’을 채택하고, 아세안 역내에서 ‘재화, 용역 및 투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보다 자유로운 자본 이동(a free flow of goods, services and investments, and a freer flow of capital by 2020)’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매우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sup>3)</sup> 특히 이후 아세안 정상들은 거의 매년 정례적으로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경제통합을 위한 많은 선언문 및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개념을 더욱 구체화하였고, 결국 2015년 아세안경제공동체 탄생을 선언하고 경제공동체의 청사진을 발표하며 이를 추진하기에 이른 것이다.<sup>4)</sup>

2) 경제공동체로서 아세안의 첫발은 1976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당시 아세안 5개국이 경제발전을 위하여 무역 분야에서 협력하겠다는 제1차 발리선언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후 아세안 국가들 간의 실제 경제협력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아세안국가들의 경제협력은 1992년 1월 28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세안경제장관회의에서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아세안 6개국이 역내 국가들에게 상호관세를 줄이자는 협의를 도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평가된다.(ASEAN, Agreement on the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Scheme for the ASEAN Free Trade Area, 1992년 1월 28일)

3) 아세안 비전 2020은 1997년 12월 14~16일 동안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제2차 특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채택되었다.(ASEAN 1997)

4) 아세안들은 매년 1회씩 정기 회담을 개최하는 것 이외에 특별회담도 개최하였다.

아세안은 2013년 현재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2대 교역상대지역 이고 우리나라와 이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교역상대국이다.<sup>5)</sup> 때문에 2015년 아세안경제공동체의 탄생은 국내경제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나, 실제로 아세안 경제공동체 추진과정이나 추진 상황 및 성과, 이에 대한 원인 분석 등을 체계적으로 다룬 연구가 그렇게 많지 않다. 예를 들어, 박번순 (2013), 강대창 (2014) 등은 아세안이 기구 창설이후 경제협력을 위하여 추진한 진화과정을 조사하고, 아세안이 경제공동체 달성을 위하여 추진한 목표가 2012년 말 현재 어느 정도 달성 되었는가를 분석하였으나 이들 목표 달성 수준에 대한 평가와 그 원인 분석은 크게 다루지 않았다.<sup>6)</sup>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를 추가 확대하여 다음의 분석을 실시한다. 첫째, 아세안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준비사항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보다 자세하게 점검한다. 이는 박번순 (2013) 및 강대창 (2014) 등 기존의 연구들이 일반적인 거시경제 지표를 보여주면서 통합성과를 제시하는 것과 차별화된다. 예를 들어, 아세안 관세율의 변화상황이나 아세안싱글윈도우 구축과정, 금융시장 통합 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사용하여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진행과정을 분석한다.

아세안 경제공동체 선언 준비 과정은 다음 절을 제시되어 있다.

- 5)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은 2003년 8월 30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아세안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아세안과의 공동연구 제안이 결정된 후, 2005년 2월 23일 1차 협상이 시작되어 2007년 6월 1일 상품협정이 발효되면서 시작하였다. 한편, 아세안은 지역협력기구로 인준권이 없기 때문에 실제 협정의 발효는 개별국가가 협정 안을 비준한 이후 이루어지는데 발효 시점에 비준이 이루어진 국가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 등 5개국이었고,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 필리핀은 각 국가들이 국내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발효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태국과의 협상은 2006년 12월에 타결되었다.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은 개별국가인 우리나라가 거대경제권과 맺은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 6) 한편 국외에서는 Das et al. (2013), Chai (2013), ERIA (2012), Kabir and Salim (2014), Pillai (2013) 등이 각종 통계지표를 사용하여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성과 및 탄생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둘째, 2015년 구축될 아세안경제공동체의 모습을 제시하고 현재까지의 성과 및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며, 이러한 성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 분석을 몇 가지 사례를 사용하여 실시한다. 박변순 (2013) 및 강대창 (2014) 등은 모두 기존의 연구들은 아세안 경제공동체에 대한 소개와 성과평가를 주요 통계지표를 사용하는 것에 집중하였으나 당시 성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 분석은 거의 시도하지 않았다. 이는 당시 연구가 구체적인 사례접근보다는 거시적인 지표중심의 연구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례 접근이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본 연구는 아세안 내부에서 실시한 각종 설문조사결과 및 실제 프로젝트의 진행과정에 나타난 사례 등을 제시하여 이를 설명한다. 특히 아세안 공동체의 개념정립 및 목표 설정 등 원칙수립 단계에서 시작하여 계획수립단계, 계획실행 단계 등의 3단계로 구분하여 간 단계별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를 현재의 성과와 연결하여 설명한다.

셋째, 2014년 5월까지의 자료 및 각종 연구결과를 사용한다. 박변순 (2013), 강대창 (2014)의 연구 이후 아세안내에서는 많은 새로운 조치가 취해졌고 새로운 기구들이 만들어졌다.<sup>7)</sup> 이는 아세안이 매년 아세안 공동체 추진을 위하여 각종 협력체를 구성하고 다양한 회의를 통하여 새로운 모습을 보였고 이는 다양한 방면에서 여러 가지 발전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아세안 경제공동체 탄생이 1년 8개월 남은 2014년 5월 현재,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성과를 예측한 후, 문제점 및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본 논문은 5장을 구성된다. 제1장은 서문이고, 제2장은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정의와 의미 및 공동체 창설을 위한 진행사항을 제시한다. 제3장은 경제공

7) 강대창 (2014)와 Chia (2013)는 각각 2010년과 2011년까지의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성과를 분석하였다.

동체의 현재까지의 추진과정과 성과에 대한 평가와 성공 가능성을 제시하고, 4장은 아세안경제공동체 탄생에 필요한 과제의 진행사항을 단계별 구분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설명한 후, 마지막 5장에서 결론을 제시한다.

## 2.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정의와 의미 및 추진 배경

### 1)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정의와 주요 과제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시작은 멀리 1976년에 시작된 아세안공업프로젝트(ASEAN Industrial Projects: AIP)에 뿌리를 두고 있고 이후, 1977년 특혜무역협정(Agreement on ASEAN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s, PTA) 추진, 1992년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의 창설 추진 결정, 1996년부터 아세안공업협력 (ASEAN Industrial Cooperation, AICO) 제도 추진 등을 통하여 보다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당시 협력들은 세계적인 경제통합이나 개방화에 비추어 다소 소극적인 형태의 경제협력이었고 또한 각국들의 실천의지들도 의문시 되어 그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sup>8)</sup> 결국 아세안은 이러한 문제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아세안 경제공동체라는 보다 구체적인 형태의 경제협력체를 정의하고 이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아세안 국가들간 보다 구체적인 형태의 경제협력은 1997년 12월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2차 비공식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

---

8)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박변순 (2013), 강대창 (2014), Das, et al. (2013)을 참조하시오. 박변순 (2013)은 아세안의 시작에서 경제협력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매우 자세하게 분석하였다.

안 비전 2020'을 채택하면서 시작하였다. '아세안 비전 2020'은 아세안이 2020년에 달성해야 하는 정치, 경제, 사회적 통합 모습을 개괄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경제통합을 역동적인 개발(Dynamic Development) 동반 관계로 표현하여, 아세안 자유무역지대형성, 중소기업 발전, 금융자유화, 과학발전, 에너지 확보, 식량안보 문제 해결, 인프라개발, 인적자원개발, 광업부문 아세안 협력 강화 등 과제들을 제시하였다.<sup>9)</sup>

아세안은 2003년 10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선언한 '아세안협력 선언II'에서 아세안공동체(ASEAN Community)를 2020년에 달성할 아세안의 보다 구체적인 모습으로 지칭하였다. 이때 아세안공동체(ASEAN Community)를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ASEAN Political-Security Community), 아세안 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Blueprint) 등을 3개의 축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2007년 1월 필리핀 세부에서 개최된 12차 아세안정상회의에서 아세안공동체의 창설을 2020년에서 2015년으로 단축하여 조기 창설하도록 선언하면서 아세안국가들의 공동체창설을 위한 활동은 보다 더 활기차게 진행되었다.<sup>10)</sup>

9) '아세안 비전 2020'은 2쪽짜리 정상들의 선언문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는 향후 아세안 경제공동체 탄생에 대한 시작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10) 이 밖에 아세안들은 아세안내 정치 및 경제 협력을 위하여 많은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예를 들어, 1998년 제5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정상들은 '아세안 비전 2020'의 구체적 프로그램으로 '하노이행동계획(Action of Hanoi Plan)'을 채택하였다. 이는 1999년부터 2004년 간 경제통합 추진 계획이었고 1999년 제6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하노이 선언'을 발표하며 평화, 안정, 균형발전의 아세안을 위한 통일 및 협력을 강조하였습니다. 하노이 선언은 '하노이행동계획'의 실시 및 총 10개 분야의 협력을 선언하였다. 당시 시점의 경제난을 반영한 거시경제, 금융협력 강화 분야가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로 떠올랐고, 지역 평화와 안보 강화의 내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경제와 관련된 프로그램이었다. 또한 2004년 제10차 아세안 정상회의에 2004년부터 2010년의 기간 동안 실행할 비엔티안행동계획(Vientiane Action Programme; VAP)을 발표하였다. 당시 '비엔티안행동계획'은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통합 가속화를 위해 11개 우선 분야를 선정해 2010년까지의 완전 통합을

아세안경제공동체의 보다 구체적인 모습과 계획은 2007년 1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세안정상에서 발표된 ‘아세안경제공동체 청사진(ASEAN Economic Community Blueprint, 이후 청사진으로 칭함)’에서 제시되었다.(ASEAN 2007)

아세안은 청사진에서 경제공동체 달성을 위하여 (1) 단일 시장과 생산기반, (2) 경쟁력을 갖춘 경제블록, (3) 균등한 경제개발, (4) 세계경제와의 통합 등의 4개의 과제를 아세안경제공동체 최종달성 시기를 2015년 말로 설정하고, 2008~2009년, 2010~2011년, 2012~2013년, 2014~2015년 등 4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하였다.<sup>11)</sup>

이때 단일기반과 생산기반은 상품 및 서비스, 투자의 자유로운 이동, 자본의 보다 더 자유로운(freer) 이동, 숙련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포함한다. 이의 구체적인 항목으로는 관세인하, 아세안단일 창구(ASEAN Single Window) 구축을 통한 거래비용 감소, 서비스자유화 추진 및 아세아투자협정 추진 등의 과제가 진행되고 있다.<sup>12)</sup>

경쟁력을 갖춘 경제블록은 경쟁정책, 소비자보호, 지적재산권, 사회기반시설 개량, 조세제도, e-commerce 등의 분야에서 새롭게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기존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직까지 아세안의 상당수 국가들이 개도국으로 이러한 선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은 이를 기회로 여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sup>13)</sup>

---

유도하였다. 제13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헌장(ASEAN Charter)'에 서명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아세안의 정체성을 강화시켰다.(이충열 2011, 박번순 2013)

11) 최초 아세안경제공동체 구축 시기를 2015년으로 설정되었을 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날짜를 지칭하지 않았다. 이후 아세안은 이 날짜를 2015년 말로 구체화하였다.

12) 아세안 각국의 전자 수출입 통관시스템은 서로 호환되지 않는다. 때문에 아세안내에서 타국으로 화물을 이동시킬 때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 이때 만약 전자 통관시스템을 통일할 경우, 이러한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약될 수 있는데 이렇게 아세안내 통일된 통관시스템이 바로 아세안 싱글윈도우이다.

13) 예를 들어, 아세안은 아세안소비자보호 위원회(the ASEAN Committee on Consumer

균등한 경제 개발은 아세안 국가 내 발전격차 해소를 위하여 '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IAI)' 를 추진하되 중소기업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는 아세안 내의 격차를 축소하고 지역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교육, 기술 개발, 노동자 훈련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이다. 한편 청사진은 중소기업자들을 위한 공동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중소기업 서비스 센터구축, 중소기업 개발 펀드 조성들의 항목을 추진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경제와의 통합은 아세안 국가들이 전체적으로 세계경제와의 협력 및 교류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나 세계 생산공급망(Supply chain)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아세안이 한국과 중국 혹은 미국이나 중동 국가 등과 같은 역외국가들과 새롭게 투자협정을 체결하고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것이나 타 지역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것 등을 모두 포함한다.<sup>14)</sup>

## 2)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추진 배경

### (1) 정치적 안정

1967년 아세안이 창립될 당시 아세안은 정치협력체의 성격을 강하게 띠었다. 당시 베트남전이 확대되고 동남아시아 지역에 공산계릴라 활동이 커지는 가운데 창설멤버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등은 모두 자국을 공산주의로부터 방어하는데

---

Protection, ACCP)를 2007년 8월에 구축하고 산하에 3개의 작업반(working group)을 두고 국가 간 소비자보호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체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 아세안내 후발개도국에서는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이나 규정이 제대로 만들어져있지 않고 설사 구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활용도가 매우 낮다.(ASEAN Committee on Consumer Protection, <http://aseanconsumer.org/about/>)

14) 예를 들어, 아세안이 한국과 투자협정을 체결한 후 보다 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아세안내 분제공장을 건설할 수 있게 된 다. 이 경우 한국에서 생산된 부품 및 원사 혹은 옷감 등을 사용하여 아세안내 기업이 이를 가공할 경우 한국과 아세안간 새로운 생산공급망이 구축된다.

매우 역점을 두었다. 또한 당시 이들 국가들은 유럽의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이후 불거진 영토문제로 상호간에 협력의 필요성을 크게 느꼈다.<sup>15)</sup>

그러나 1990년 들어 이후 소련이 붕괴되고 동유럽 국가들이 체제를 전환시키기 시작하면서 동남아시아에 공산주의 확산에 대한 위협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안보적인 측면에서 아세안의 역할이 크게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베트남도 이에 동참하면서 이러한 사실은 보다 분명하게 인식되었다. 때문에 아세안 창립 목표중 가장 중요한 목표중의 하나인 정치안보적인 측면의 중요성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경제적인 목표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기 시작하였다.<sup>16)</sup>

## (2) 세계경제의 개방화 및 블럭화

1990년대 들어 냉전이 종식하고 상호 개혁 및 개방이 강조되기 시작하면 지역내 경제협력이나 국가간 경제협력은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당시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의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고, 유럽에서 유럽연합과 북미에서의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의 탄생 등 지역통합도 매우 급격하게 진행되었다.<sup>17)</sup>

15)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령(領) 사바(Sabah) 주에 대하여 1960년대 필리핀은 영유권을 주장하였고 이는 1977년 쿠알라룸푸르의 제2차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당시 마르코스(Marcos) 필리핀 대통령은 아세안의 발전을 위해서 사바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하면서 해결되었다. 또한 1962년 영국과 말라야연방(the Federation of Malaya)이 말레이 반도와 싱가포르·사라와(Sarawak)·사바(Sabah)를 포함한 말레이시아 연방 안(案)을 발표하자, 필리핀은 대결정책에 돌입했었다.(양승윤, 2006)

16) 방콕 선언에서 아세안의 창립 목표는 크게 경제성장과 발전, 역내 정치적 안정 및 안보 확보, 교육 및 연구개발 확대, 교역 확대, 아세안 문화 연구 확대 등으로 요약되고, 이중 가장 중요한 이슈로 경제성장과 역내 정치적 안정 및 국가안보 확보라고 할 수 있다.

17) 우루과이 라운드는 1987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1993년 8차 협상에서 최종안이 통과되었고, 1994년 4월 모로코의 말라케시에서 각국이 서명하면서 그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세계무역기구(WTO)는 이 우루과이 라운드의 타결 결과로 1995년 설립되었다.

따라서 아세안국가들은 이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또한 자신들의 경제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었으며 이는 결국 아세안 경제협력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각국이 시장개방을 추진하면서 무역확대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게 되었고, 급기야 1992년의 제4차 아세안 정상회의는 2008년까지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의 창설하는 것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 (3) 중국의 부상

중국이 개혁과 개방을 실시하면서 높은 경제성장을 추진하면서 아세안 국가들은 동아시아내의 경제질서 개편이라는 문제를 직면하였다.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을 국제시장에서 경쟁하는 주요 상대국가로서 인정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위협을 뚜렷하게 느끼게 되었다.

특히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집중하였던 아세안국가들은 중국과의 경쟁시 규모의 경제 효과로 인하여 경쟁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역내 통합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중국으로의 직접투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아세안각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과거와 다르게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역시 아세안이 개방과 협력을 부추이게 되었다. 아세안은 선진국으로부터의 해외직접투자를 통하여 자본을 축적하였고, 이에 기반하여 경제성장을 추진하였었다. 그러나 중국의 개방으로 중국으로의 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아세안각국은 정책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개별 국가들이 경제자유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역내 경제통합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sup>18)</sup>

18) 1990년대 중국은 새롭게 개방하면서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집중하여 국제시장에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아세안 국가들 역시 이들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간의 경쟁은 불가피하였다.

또한 아세안 국가들은 개별국가의 자격으로 중국과 양자간 협력을 추진할 경우 협상위치에서 자신들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는 공통적인 유대감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이는 이들 국가의 경제협력이 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 (4) 동아시아 금융위기

아세안국가들은 1997~1998년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역 내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더욱더 체감하게 되었다. 금융위기가 태국에서 시작하여 주변국인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으로 전염되면서 각국의 금융시장이 크게 변동하고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이 부각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상호협력의 필요성을 갖게 된 것이다. 특히 외환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치앙마이이니셔티브를 현실화시키면서 아세안 경제정책 담당자들은 기존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초기 치앙마이이니셔티브는 아세안 10개 국가들과 한국, 중국, 일본 등 3국 등 13개국이 양자간에 통화스왑협정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 13개국의 통화정책 담당부서 혹은 외환정책 담당부서들은 양자간에 정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협정을 체결하여야 하였다.<sup>19)</sup>

한편 금융위기가 금융기관의 부실에서 시작되었다는 인식이 공유

19) 치앙마이이니셔티브는 초기 양자간 자금공여 협정이었으나, 2010년 3월부터 다자간 기금으로 그 형태가 바뀌게 되었다. 한편 초기 양자간 자금공여협정이 진행될 때, 13개국이 상호간 협정을 체결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각국의 담당자들은 서로 많은 접촉을 가져야 하였다. 예를 들어, 한국이 나머지 12개국과 개별적으로 통화스왑협정을 체결한다면 한 달에 한 건을 체결한다고 하여도 일년 내내 이들 국가를 방문하고 협의하고 협정을 체결한다. 이는 위기 이전에는 상상하기 힘든 수준의 정보교환과 상호 협력인 것이다. 보통 이 협정은 2년 혹은 3년이 만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계속하여 양국간 협의가 이루어지고 협정이 체결되었었다. 한편 2010년부터 다자간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아세안+3은 정기적인 협의를 함과 동시에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AMRO)를 싱가포르에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되면서 아세안 각국의 금융감독기구들은 상호 금융시장에 대한 정보교환이나 감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상호 협력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중앙은행 총재 및 재무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역내 금융시장의 문제점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였다.<sup>20)</sup>

또한 금융위기가 거시경제 불균형에 기초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협력의 필요성도 제기 되었고, 이는 무역 및 산업 등 경제정책 전반적인 협력으로 확대되었다. 일반적으로 각국에서 거시경제정책 및 금융정책을 주관하는 부처는 경제 정책을 전반적으로 주관하는 부처이다. 따라서 이 부처들의 협력은 결국 타 정책 및 부처의 정책으로 쉽게 연결되는 모습을 띠었다.<sup>21)</sup>

#### (5) 장기적인 협력관계 유지에 따른 신뢰성 구축

아세안 각국들은 경제협력이 본격화된 1990년대 초 이미 20년 이상 외교 및 경제 부문에서 다양한 협력관계를 맺어왔었다. 비록 당시까지 아세안이 가시적인 성과가 부진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들은 196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각종 회의를 개최하였고 각종 협력관계를 수립하였다. 예를 들어, 아세안은 1977년 특혜무역협정(PTA)을 체결하였고 1981년에 아세안공업보완계획(ASEAN Industrial Cooperation Scheme, AICS)을 실시하였으며, 1983년에는 외국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부품산업 개발을 위해 아세안공업합작(AIJV, ASEAN Industrial

20) 아세안 중앙은행 총재 회의 (ASEAN Central Bank Governors' Meeting) 이 매년 개최된다. 가장 최근의 아세안 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2014년 4월 4일 미얀마에서 열린 10th ASEAN Central Bank Governors' Meeting 이다. 이와 동시에 2009년 이후 아세안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ASEAN Central Bank Deputies Meeting, ACGM) 도 반기마다 개최된다.

21) 예를 들어, 각국의 경제협력은 ASEAN Economy Minister Meeting이 주도하는데 이들은 매년 정례회의를 할 뿐 아니라 국장급 실무자 협력위한 각종 회의를 개최한다. 각국의 경제장관은 대체로 경제정책을 총괄하기 때문에 이들의 결정사항은 주요 경제정책수립에 반영된다.

Joint Ventures) 제도를 추진했다.(2013, 박번순)

따라서 이들 각국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어느 정도 축적하고 있었고, 일부 부문에서는 기능적 협력의 경험을 갖고 있었다.<sup>22)</sup> 즉 상호간의 협력을 통한 경제발전이라는 주제를 크게 거부감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3. 아세안경제공동체 진행 상황과 성과

#### 1) 스코어카드

아세안 사무국의 ASEAN Integration Monitoring Office (이후 AIMO)는 아세안경제공동체 진행과정을 점검하기 위하여 스코어카드를 작성하여 발표한다.<sup>23)</sup> 이는 유럽연합 단일시장 스코어보드(Scoreboard)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아세안경제공동체 추진을 위한 중간 점검 성격을 가진다.<sup>24)</sup>

스코어카드는 2007년에 발표된 아세안 경제공동체 청사진에서 각 시점에 각국 정부가 준수하기로 제시한 각종 정책 및 규제 완화

---

22) 비록 이들이 성과는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미진하였지만 이들의 추진을 위하여 기능적인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은 분명하다.

23) ASEAN Integration Monitoring Office의 성격과 업무는 다음 절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한다.

24) 유럽연합은 단일시장 구축을 위하여 액션플랜을 제시하였고, 각국이 이를 준수하는 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스코어보드를 만들었다. 이 스코어보드는 유럽연합이 단일시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럽연합이 제정한 각종 지침(directive)을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얼마나 준수하는 가를 계량적인 지표로 만든 것에서 시작된 것이다. 즉 각 지침이 만들어진 후 각국이 이 지침에 합당한 규제를 갖고 있는 가를 조사하여 실적 비율을 제시한 것이다. 유럽연합은 이 지표를 'Single Market Scoreboard' 보고서에 1997년 11월부터 발표하였다. 현재 이 보고서는 연 2회 정기적으로 발간된다.(Single Market Scoreboard, No. 1 November, 1997. European Commission)

사항을 각국이 실제로 준수하고 있는 가를 조사하고 이 실시여부를 점검하여 이를 목표대비 실적 비율로 제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각국 정부가 청사진에서 제시한 특정 규정을 완전히 따르고 있는 가를 조사하고 만약에 이를 준수할 경우 ‘준수’로 표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비준수’로 표시하여 그 준수항목의 비율을 살펴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 스코어카드는 각국 정부의 정책 준수여부를 고려하는 것으로 실제 각종 조치가 실시된 후 이것에 현실에서 나타나는 효과를 추정하는 것은 아니다.<sup>25)</sup>

한편 아세안 경제공동체 스코어카드의 작성은 AIMO의 의뢰를 받은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이후 ERIA)가 작성한다. 현실적으로 AIMO는 아세안 각국이 경제공동체 탄생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지키기 위하여 각국의 법규 및 규정을 개정하였는가를 모두 점검하고 이를 분석한 전문인력을 보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sup>26)</sup>

아세안 경제공동체 스코어카드는 아세안경제공동체의 4대 축인 단일시장과 생산기반, 경쟁력을 갖춘 경제블록, 균등한 경제개발, 세계경제로의 통합 등 4개 부문에서 설정한 아세안경제공동체 전략 스케줄(Strategic Schedule for ASEAN Economic Community)에 제시된 각각 주제들에 대하여 전략의 이행 여부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에 점검하는 것이다. 이 전략 스케줄은 2008~2009, 2010~2011, 2012~2013, 2014~2015 등 2년씩 4개 단계로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각 스케줄에 해당된 요소들의 달성 여부가 조사되어 이

25)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럽연합은 Scoreboard보고서에 이러한 규정 준수 여부와 함께 통합시장 진행과정을 나타내는 지표로 유럽연합 역내 무역비중과 서비스 비중, 외국인직접투자(FDI)비중 등을 동시에 발표한다.

26) 2007년 1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3차 East Asian Summit(아세안+6(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에서 16개국 정상들은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연구를 수행할 국제연구기관으로 ERIA의 창설을 결정하였고, 아세안은 2008년 아세안 사무국 산하에 ERIA를 설치하였다. (<http://www.eria.org/>)

스코어카드가 작성된다.

ERIA가 2008년 이후 2013년 10월까지 작성한 목표 대비 달성치를 보여주는 스코어카드에 따르면, 2008~2009년에 해당하는 1단계에서는 89.5%가 달성되었고, 2010~2011년인 2단계에서는 75.2%가 달성되었으며 2012~2013년 3단계기간중인 2013년 10월까지 76.2%가 달성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2008년부터 2013년 10월까지의 전체 79.7%가 달성된 것으로 제시되었다.(Sirivunnabood, 2014)<sup>27)</sup>

이를 아세안경제공동체를 구성하는 4대 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단일시장과 생산기반 부문이 81%를 달성하였고, 경쟁력을 갖춘 경제블록 부문이 77%, 균등한 경제개발 부문이 89%, 세계 경제에 통합 부문이 75%를 달성하였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들의 달성도는 모든 부문에서 균등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8)</sup>

27) 아세안사무국과 ERIA는 공식적으로 2010년과 2012년에 2008-2009, 2010-2011의 스코어카드를 발표하였으나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 단지 아세안 사무국이나 ERIA의 담당자들이 아세안경제공동체에 대한 각종 세미나나 회의의 발표문 등에서 일부 발표할 뿐이다. 예를 들어, Rillo (2012)는 2012년 3월까지, Pillai (2013)은 2013년 4월 세미나에서 2013년 3월까지의 스코어카드를 발표하였고, Sirivunnabood (2014)는 2014년 2월 세미나에서 2013년 10월까지의 스코어카드를 발표하였다.

28) 이는 2012년 아세안사무국이 발표한 *ASEAN Economic Community Scorecard* (2012)의 내용과 차이가 난다. 즉 2012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에 해당하는 국면1에서는 93.8%가 달성되었고, 2010~2011년인 국면2에서는 49.1%가 달성되어 본문에서 설명한 내용과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해당 기간 중 달성되어야 할 것이 만약 해당 기간에 달성되지 못한 경우 해당기간 중의 스코어카드 점수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그 이후 달성될 경우 이를 과거 기간에 달성된 것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2011년에 달성되어야 할 것이 2012년에 달성되었다면 2011년까지 성과를 조사한 보고서상 스코어카드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2012년에 작성한 보고서에는 2011년 성과가 달성된 것으로 스코어카드에 포함되었다. 또한 2012년 보고서에서 Fully implemented 와 Not fully implemented 에 대한 구분이 다시 구성하면서 스코어카드가 다시 이루어지게 되었다.

## 2) 경제지표

2013년에 발표된 AIMO와 세계은행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세안 국가들은 이미 아세안경제공동체 탄생을 위한 각종 조치들로 인하여 상당한 성과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9)</sup> 이는 아세안 단일 시장과 생산기반, 경쟁력을 갖춘 경제블록, 균등한 경제개발, 세계 경제에 통합의 4대 축에서 신규무역 창출효과, 무역편이성 개선 효과, 서비스자유화 효과, 외국인직접투자 증대효과, 저소득국가 개발 효과 등 5개 효과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된다.

먼저 단일시장과 생산기반 및 경쟁력 현황 부문을 살펴보기 위하여 아세안의 전체 무역 규모와 역내 무역비중을 <그림 1>과 <그림 2>에서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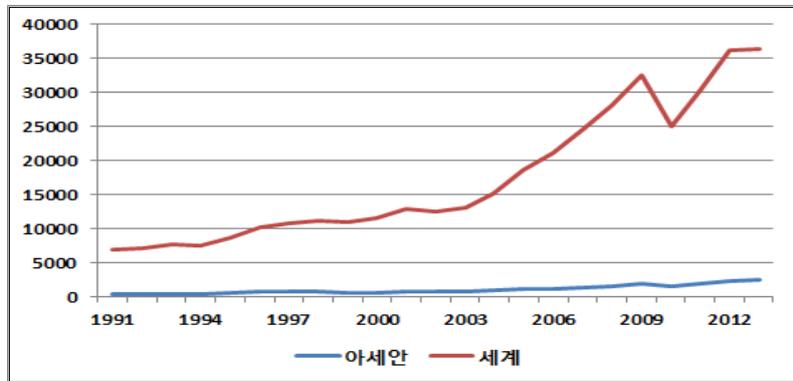
먼저 아세안국가들의 무역규모는 1993년 4,300억 달러에서 2012년에는 2조 3886억 달러로 6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1997년~1998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및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하고 아세안국가들의 무역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를 세계무역증가세와 비교할 때에 이 기간 중 아세안의 무역증가율은 10.7%를 기록하고 세계무역증가율은 8.4%를 기록하여 아세안의 무역증가율이 세계무역증가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합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2000년대를 보더라도 아세안의 무역증가율은 11.6%를 기록하고, 전 세계는 10.0%를 기록하여 아세안의 증가율이 더욱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한편 이 기간 중의 역내무역비중은 1993년 19.2%에서 2000년 22.0%로 상승하였고 2011년에는 25.0%로 꾸준히 상승하였다. 이를 보면 아세안의 경제협력증진은 꾸준히 아세안의 무역증대에 기여하였고, 또한 역내 무역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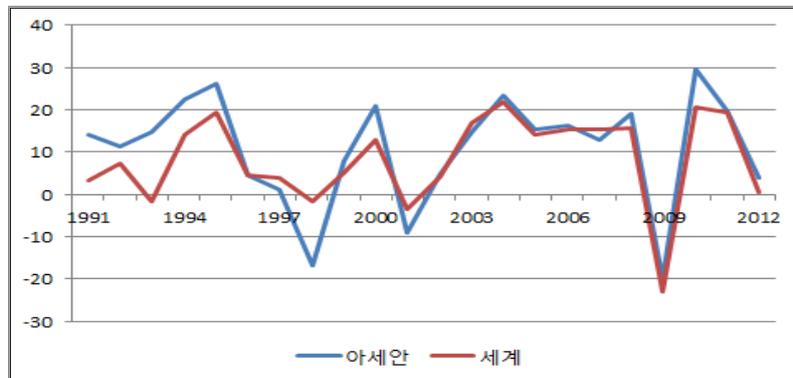
29) ASEAN and World Bank, *ASEAN Integration Monitoring Report*, 2013

한 추세는 2003년 이후 더욱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아세안 경제공동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한 시기와 일치한다.

<그림 1> 아세안과 세계 무역 규모 및 증가율 추이  
(a) 무역 규모(10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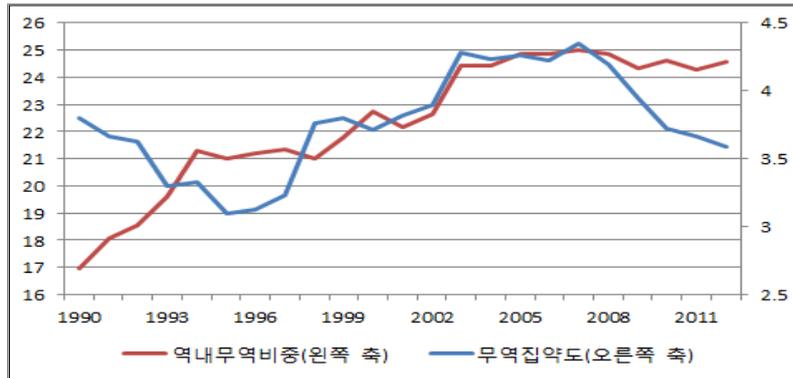


(b) 증가율(%)



자료: ADB ARIC Data Base, <http://aric.adb.org/integrationindica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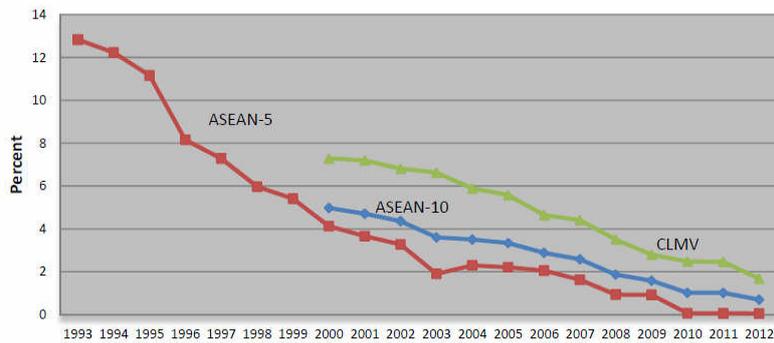
<그림 2> 아세안의 역내 무역비중과 무역집약도(%)



자료: ADB ARIC Data Base, <http://aric.adb.org/integrationindica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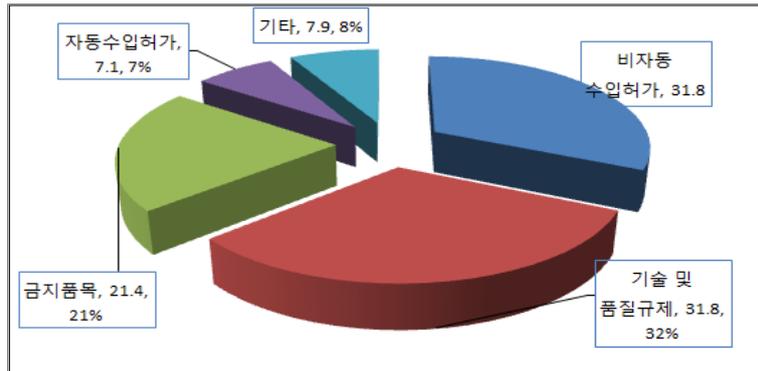
이렇게 아세안 역내 무역이 활성화되고 무역창출효과의 원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아세안의 관세율을 조사한 결과, 2000년대 들어 아세안의 관세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과 같이 아세안-5는 상호관세율이 2000년 4% 수준에서 2012년에는 무관세가 되었고, 아세안 저소득국가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의 상호관세율은 2000년 7%수준에서 2012년 2% 미만으로 하락하였다.

<그림 3> 아세안의 상호관세율 추이



자료: ASEAN and World Bank, ASEAN Integration Monitoring Report, 2013

<그림 4> 아세안의 비관세 장벽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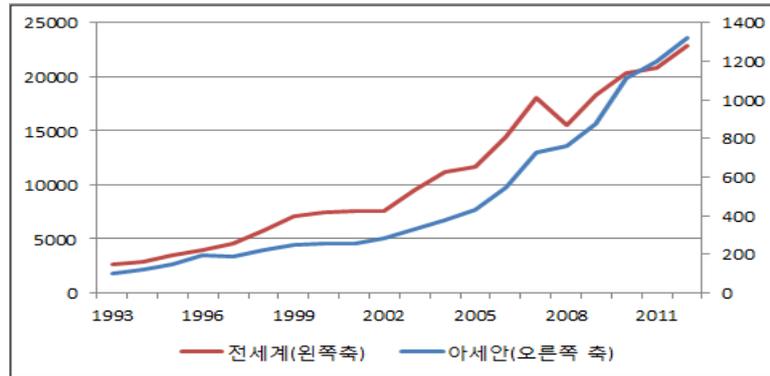


자료: ASEAN and World Bank, ASEAN Integration Monitoring Report,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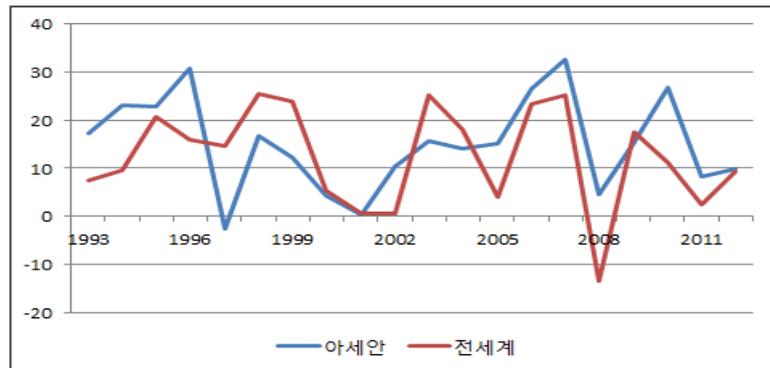
반면 아세안내의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은 아직까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와 같이 비관세 장벽은 각국의 조세제도나 각종 인허가 제도, 표준화 및 품질 규제, 금지품목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한편 아세안국가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규모 및 증가율과 세계 전체의 직접투자유입규모를 <그림 5>에서 비교하였다. 이를 보면 이 기간 중 아세안과 세계 모두 직접투자규모가 모두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 중 아세안의 직접투자유입규모는 14.8% 증가한 반면, 세계전체 직접투자는 11.9% 증가하여 아세안의 직접투자 증가율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2000년대 들어 아세안의 증가율이 14.2%를 기록한 반면 세계는 9.9%를 기록하여 그 차이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아세안의 경제통합 진행으로 아세안지역이 해외투자자들에게 보다 매력적인 지역으로 인정된 결과로 해석된다.

<그림 5> 아세안국가의 직접투자 규모 및 증가율  
(a) 규모(백만 달러)



(b) 증가율



자료: UNCTAD FDI Statistics database, [http://unctadstat.unctad.org/ReportFolders/reportFolders.aspx?sRF\\_ActivePath=P,5,27&sRF\\_Expanded=P,5,27](http://unctadstat.unctad.org/ReportFolders/reportFolders.aspx?sRF_ActivePath=P,5,27&sRF_Expanded=P,5,27)

한편 아세안국가들의 경제격차 차이점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1인당 소득의 매년도 변이계수(=표준편차/평균)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그림 6>의 (b)와 같이 변이계수는 2000년도 이후 점진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제시되어 이들 간의 격차가 점차 줄어든 것을 보여주었다. 결국 이러한 추정결과에 기초할 때 아세안국가들의 국가 간 소득분배는 2000년대 들어 점차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세안국가들의 개방화와 경제협력으로 따라잡기(catch-up) 효과가 발전하여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sup>30)</sup>

한편 아세안에서 각국 소득의 증가 및 경제발전으로 각국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들 국가의 1인당 소득과 1인당 소득증가율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림 6>의 (a)는 2000년 ~2013년 기간 동안 아세안 각국의 PPP기준 1인당 소득과 1인당 소득 증가율을 그림으로 보여준 것으로 이 두 변수들이 서로 음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31)</sup>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아세안의 경제협력과 성장은 오히려 아세안 국가 간 소득분배의 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32)</sup>

30) 이러한 연구 결과는 박변순 (201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당시 박변순은 아세안 국가들의 소득분배 상태를 아세안 내의 최고소득국가와 최저소득국가의 소득비율 (GAP I), 최고소득국가의 소득과 해당 경제권 평균소득의 비율(GAP II), 상위 3개국 소득평균과 하위 3개국 소득평균의 비율(GAP III) 및 경제권 내 상위 3개국 소득 평균과 해당 경제권 평균소득의 비율(GAP IV)등의 지표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분석결과는 아래 표와 같이 대체로 모두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2002	2006	2010
GAP I	67.4	40.1	29.7
GAP II	4.3	3.7	3.9
GAP III	29.2	23.2	18.1
GAP IV	2.9	2.8	2.7

자료: 박변순, “아세안경제협력의 진화와 평가,” 동남아시아연구 제23권 2호 2013

31) 이를 보다 자세히 보기 위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회귀방정식으로 설정하고 추정된 결과 아래와 같이 이 두 변수가 음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1인당\ GDP증가율 = 18.677 - 1.430 \cdot \log(1인당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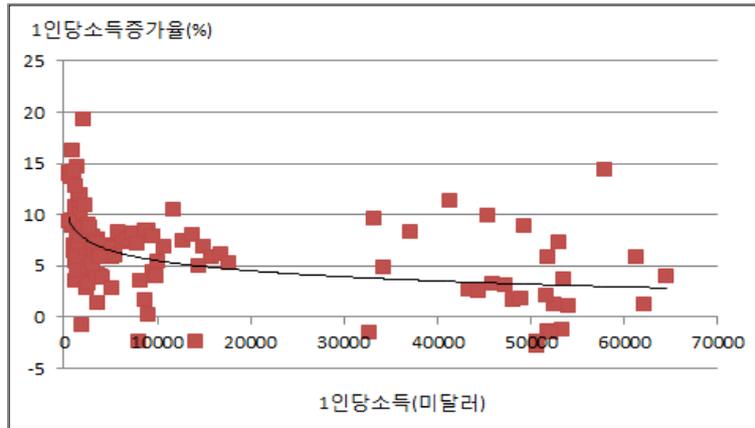
$$(10.076) \quad (-6.770)$$

$$R^2 = 0.2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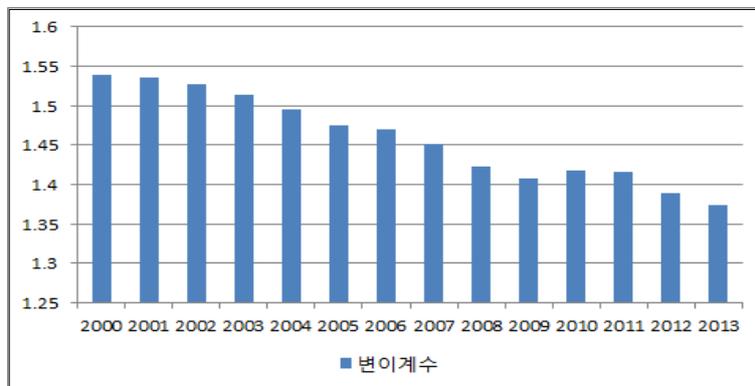
이때 (·)는 t-값이다. 이에 따르면 소득이 낮은 국가의 소득증가율이 소득이 높은 국가의 소득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난다.

32) 이는 아세안 국가별 평균소득간의 차이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아세안 국가 내의 소득분배가 개선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림 6> 아세안국가들의 소득불평등 관련 지표  
(a) 1인당 소득과 증가율



(b) 1인당소득의 변이계수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http://www.imf.org/external/ns/cs.aspx?id=28>

### 3) 평가

아세안이 전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 수년 동안 경제협력 추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아세안경제공동체 스코어카드

가 2013년 10월까지 79.7%를 기록하여 목표의 약 80%가 달성되었고, 각종 조치들의 힘입어 각종 경제지표 역시 실제 경제통합이 가속화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아세안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세안내에서 각종 경제관련 모임과 회의가 진행되었고 또한 위원회가 창설되어 추진되었다. 예를 들어, 아세안은 소비자보호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2007년 8월 아세안소비자보호위원회(ASEAN Committee on Consumer Protection, ACCP)를 창설하고, 아세안 소비자보호 프레임워크와 각국의 소비자보호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sup>33)</sup> 또한 금융시장 통합을 위하여 아세안 중앙은행 부총재들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매 분기별로 은행시장 통합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시장통합을 위한 각종 세부 사항을 점검하고 합의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년 1회 아세안 경제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고 있다.<sup>34)</sup> 또한 아세안은 싱글윈도우 도입을 위하여 아세안 싱글윈도우구축위원회(ASEAN Single Window Steering Committee)를 결성하고, 기술분야 작업반(Working Group on Technical Matters)과 규제분야 작업반(Working Group on Legal and Regulatory Matters)을 두고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각 부문에서의 노력은 결국 스코어카드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많은 의제에서 합의점

33) 아세안소비자보호위원회는 산하에 (1) Working Group on Rapid Alert System & Information Exchange, (2) Working Group on Cross Border Consumer Redress, (3) Working Group on Capacity Building 등 3개의 워킹그룹을 두고 (a) Development of a notification and information exchange mechanism, (b) Development of a cross border consumer redress website, (c)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a capacity building roadmap 에 대한 주제에 대한 발전방안을 연구하고 실제로 구축하고 있다.

34) 이때 이들 부총재들은 산하에 금융서비스자유화 작업반, 자본시장 발전 작업반, 자본시장 자유화 작업반 및 지급결제시스템 작업반 등 4개의 작업반워킹그룹을 두고 각 부문별로 금융시장통합 관련 사항을 추진하고 있다. (이충열, 2011)

을 토출하였고, 실제로 아세안 각국들의 많은 규제가 통일되었으며, 또한 일부는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세안 싱글윈도우 같이 실제로 도출된 합의점은 일부 국가에서 시스템구축에 활용되고 있다.<sup>35)</sup>

둘째, 아세안 경제공동체는 같이 추진되고 있는 아세안 정치안보 공동체 (ASEAN Political-Security Community)이나 아세안 사회문화 공동체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에 비하여 보다 많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sup>36)</sup> 예를 들어, 아세안 정치안보 공동체에서 아세안 정치안보 공동체 청사진(ASEAN Political-Security Community Blueprint) 이 목표로 하는 3대 사항은 (1) Rule based community of shared values and norms, (2) A cohesive, peaceful and resilient region with shared responsibility for comprehensive security, (3) A dynamic and outward-looking region in an increasingly integrated and interdependent world 등으로 모두 단기적으로 실현이 어려운 과제이다.

또한 아세안 사회문화 공동체를 볼 때 아세안 사회문화 공동체 청사진(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Blueprint)이 제시한 주제들인 (a) Human development, (b) Social welfare and protection, (c) Social justice and rights, (d) Ensuring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e) Building the ASEAN identity, (f) Narrowing the development gap 등에서 아세안 내부에서 단기간에 뚜렷하게 성과를 보일 것이 많지 않다.

결국 이들 아세안 정치안보 공동체와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의

35) 2014년 4월말 현재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7개국은 개별국가의 싱글윈도우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36) 아세안공동체 창설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보고서는 2009년에 발표된 *Roadmap for an ASEAN Community 2009-2015*이다. 이 보고서는 ASEAN Political-Security Community Blueprint, ASEAN Economic Community Blueprint 및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Blueprint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사진을 보면 일부는 구체적인 성과를 찾아볼 수 없는 과제들로 구성되어 있고, 일부는 실현 사항과 미실현 사항을 구분하기도 쉽지 않은 과제들을 나열한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이들 주제를 보다 세분화한 목표치로 구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성과지표를 구축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아세안 국가들이 이 두 가지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추진한 성과는 주제 관련 부처 간 국제회의 개최와 관련 이니셔티브 작성 등으로 구체적인 조약형태로 제시된 것은 별로 없다.

결론적으로 아세안 경제공동체 청사진은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계획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공동체 청사진에 비하여 성과 측정이 원활한 이점을 갖고 실제로 구체적인 여러 성과를 보여 주었다.

셋째, 비록 아세안이 각종 자유화 및 시장 개방에서 많은 문제점이 관찰되고 있으나, 경제공동체를 실현화하는 방향이나 경제 통합을 추진하는 방향의 큰 틀을 벗어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 청사진은 각국이 해당 기간 내에 준수하여야 하는 많은 사항이 추상적인 면을 포함하고 있다. 어떤 항목은 특성 시스템의 구축과 같이 구체적인 형태를 띠고 있으나, 또 어떤 항목은 관련 직원들의 역량강화 같이 매우 추상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 실현 여부가 확실하게 들어나나 후자의 경우에는 관련 직원들에 대한 간단한 교육 정도로 사실상 규정 준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될 수도 있다. 또한 시스템 구축의 경우에도 이 시스템의 활용도를 지칭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제 이 시스템의 이용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들 각종 조치는 실제로 경제공동체 탄생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이고, 적어도 이를 저해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즉 아세안은 경제공동체 탄

생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올바른 방향으로 전진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 4) 2015년 아세안경제공동체 탄생은 성공할 것인가?

2015년 아세안경제공동체의 탄생 및 성공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아세안경제공동체의 탄생 혹은 성공의 정의를 명확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아세안 정상들은 청사진 혹은 공동체 선언문에서 아세안경제공동체의 구체적인 지배구조나 형태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고 다만 4대축을 제시하여 이들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세안경제공동체로 정의 하였다. 때문에 이들 활동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평가지표보다는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공동체의 탄생 혹은 성공으로 고려하게 된다. 예를 들어, 청사진에서 제시하는 제도적인 규범을 각국이 준수하기 위하여 각국의 법이나 규정이 개정하게 되면 이는 공동체 탄생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졌다고 본다. 그러나 실제로 현장에서 각종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규제와 규범의 변화를 느끼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된다. 관련 업무에 대하여 각국의 관련 현장 직원들이 이를 숙지하고, 관습적인 문제를 모두 해결한 다음에야 이러한 사항을 현장에서 실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제 변경이후에도 상당시간이 지나야 시장참여자들은 실제로 규제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된다.

또한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청사진에 제시된 항목들 중 상당부분이 추상적인 의미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각종 사항의 구체적인 실행 여부가 뚜렷하지 않을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해당항목에는 각국 정부가 해당 업무 담당직원의 역량강화 활동을 하는 것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의하기 쉽지 않은 항목도 포함되어 있다.

실제 이 업무와 관련되는 기업가 입장에서 보면 현장직원이 관련 업무를 능숙하게 할 경우 이 항목이 이행된 것으로 보나, 이 업무종사자 일부에게 어느 정도의 교육이 이루어진 것 역시 청사진에 제시된 항목의 이행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탄생이나 성공의 의미는 아세안 경제공동체를 주도하는 정부 및 관련 기관들과 아세안 경제공동체를 활용하는 경제주체들 사이에게 상호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즉 아세안경제공동체 탄생을 주도하는 각국 정부나 아세안의 입장에서 볼 때, 아세안경제공동체는 2015년 말에 탄생할 것이고, 상당히 성공한 모습으로 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아세안 경제공동체 창설 선언 이후 아세안경제는 더욱더 통합될 것도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 기업 활동이나 소비활동에서 활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2015년 아세안경제공동체의 탄생은 매우 실망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세안 싱글윈도우가 10개국에 모두 구축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통관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상당기간이 지나서 일 것이기 때문이다. 캄보디아나 라오스 같은 후발개도국에서도 싱글윈도우 구축을 위한 각종 하드웨어가 선진국들의 재정적인 지원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구축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를 활용하는 현장 직원들이 숙달되기에는 실제로 수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로, 2015년 아세안 은행 시장 통합은 아세안내의 일부 대형은행들이 회원국들에 현지법인이나 지점 등을 설치할 때 현지의 금융감독기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모국의 금융감독기관의 인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sup>37)</sup> 현재 각국의 민간은행이 타국에 지점이나 현지법인을 설치할 경우, 본국 및 현지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매우 까다로운 인허가

37)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충열 (2011), ADB (2013)을 참조하시오.

를 받아야 하는 점에 비하여 매우 진일보한 규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조치가 취해진 이후에도 회원국 은행이 다른 회원국에 은행 지점이나 현지법인을 설치하는 것은 수년이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에 대한 각종 경제 및 금융환경조사, 자금조달, 현지 기타 금융기관과의 기존 업무 협력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계획을 세운 후 이를 실천하기에는 수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금융소비자인 기업이나 일반 가계가 이들의 진입으로 서비스가 개선된 성과를 느끼려면 이보다 수년이 더 늦어질 수 있다.

한편 소비자보호에 대한 각종 정책 실행은 더욱더 늦어질 수 있다. 비록 소비자보호에 관련된 법률이나 규제가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인식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보호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부록에서 제시한 아세안 기업가들에 대한 다양한 설문조사 결과와 같이 기업관련 종사자들은 아세안의 경제공동체 탄생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된다.<sup>38)</sup>

예를 들어, ASEAN Business Advisory Council (ASEAN-BAC)이 2013년 5월~8월 사이 아세안내의 대표기업들 502개 기업에 설문서를 받아 정리한 결과에 따르면, 아세안 경제공동체가 2015년에 탄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6%가 전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26%가 대체로 불가능하며, 45%가 어느 정도 가능하고, 21%가 매우 가능하며 2%가 확실히 가능하다고 답변하여 경제공동체 탄생을 확신하는 기업가들은 23% 불과하였다.(Wong and Wirjo, 2013) 이러한 사실은 아세안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외국인들에게서 보다 뚜렷하게

38) 아세안각국의 기업가 및 근로자들에게 2013년-2014년 봄까지 4개 기관이 실시한 설문결과를 부록에 제시하였다. 각 설문문항이나 조사 대상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를 서로 비교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다만 본 연구는 이들 설문조사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실에 기초하여 탄생 혹은 성공가능성을 평가하였다.

나타났다.

또한 미국 기업가협회 싱가포르 지부가 2013년 5월 10일~ 6월 10일까지 아세안내 미국 기업 475개에 아세안 경제공동체 탄생에 대한 전자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세안이 2015년 경제공동체 탄생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에서 52%가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변하고, 오직 23%만이 달성할 것으로 답변하였다.(American Chamber Singapore, 2014)

#### 4. 아세안경제공동체 추진의 단계별 문제점 진단

전절에서는 아세안 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준비과정과 지금까지의 성과를 살펴보고 이를 평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아세안 경제공동체가 2015년에 과연 탄생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제시하였다. 본 절에서는 아세안 경제공동체 탄생 성과와 결과가 나타나게 된 과정과 문제점을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지난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창설 과정을 1) 경제공동체 원칙 수립 단계, 2) 경제공동체 설립 계획 및 설계의 단계 3) 경제공동체 계획 실행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진행과정과 문제점 등을 구분하여 살펴본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2015년에 예정된 아세안 경제공동체가 시장 참여자들의 예상과 같이 미흡한 형태로 이루어질 경우 이렇게 된 원인을 살펴보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보다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 1) 경제공동체 원칙 수립 단계

(1) 아세안의 다양성

아세안 경제공동체는 아세안 10개국들이 2015년 말까지 달성할 경제공동체를 의미한다. 때문에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구축이 성공하려면 아세안 경제공동체가 어떠한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포함되어 이를 추진할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세안의 10개국들은 각국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에는 너무도 다양하다. 특히 아세안 10개국의 정치, 경제적인 구조를 살펴볼 때 이들이 과연 공통적인 목적을 향한 경제공동체의 형태에 동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한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들의 경제구조가 매우 차별화된다. 경제규모 면에서 2013년 기준 1인당 소득이 54,775.5달러인 싱가포르부터 868.7달러에 불과한 미얀마까지 너무도 커다란 차이가 난다. 또한 경제규모로 볼 때 8,703억 달러인 인도네시아부터 100억 달러인 라오스까지 역내 국가 간 너무도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산업구조로도 미얀마, 캄보디아 등 농업중심 국가부터, 싱가포르와 같은 첨단 서비스 중심 국가, 원유와 천연가스 중심의 브루나이 등과 같이 다양한 국가들이 분포한다.

또한 역내 국가들의 정치민주화정도가 다르고, 사회적 투명성 역시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등 정치·사회·문화적인 차이점도 크다.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각국의 공무원 및 정치인들의 부패 존재에 대한 인식도에 기초하여 각국의 부패정도를 수치화해 국가별 순위를 매긴 2013년 국가부패지수 순위 결과에 따르면 싱가포르와 브루나이는 각각 세계 5위와 38위의 높은 순위에 포함된 반면,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는 각각 140위, 160위 및 157위로 가장 낮은 순위의 그룹에 포함되어 있다.<sup>39)</sup>

또한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매년 발표하는 민주화지수 결과에 따르면 2012년 현재 전 세계 168개국 중 인도네시아 53위, 말레이시아 64위 등 중간순위의 국가부터 시작하여 베트남 144위, 라오스 156위, 미얀마 155위 등 매우 낮은 순위의 국가들까지 분포되어 있다.(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3)

이렇게 역내 국가들이 경제, 사회적인 구조에서 차이점을 크게 갖고 있을 경우 과연 이들 국가들이 가질 수 있는 공동의 목표가 무엇인가 혹은 경제공동체의 구조가 어떠한 형태가 되어야 하는가, 공동으로 추진할 수단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합의를 과연 도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세안 후발개도국은 해외자본유치에 따른 경제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노동집약적인 제조업과 농업개발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는 반면, 말레이시아와 태국과 같은 선도국가들은 중진국합정을 벗어나기 위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산업인 IT산업 및 금융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 위치에 있는 싱가포르는 세계 주요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때문에 아세안 국가들이 공통적인 경제정책이나 구조 조정 등에서 상호 합의점을 도출하기 쉽지 않아 오직 느슨한 형태의 경제공동체가 가능할 수밖에 없고, 공동체 추진 전략도 국가별로 차별화될 수 밖에 없다.

## (2) 통합 범위의 광범위성

아세안경제공동체는 무역이나 통상 등 일부 부문에서 국한되는

39)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국제사회에서의 부패추방을 목표로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에 대해 국제 부패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이를 위한 연구 및 정보수집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비정부기구(NGO)로 1993년 독일의 베를린에 설립되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각국 공무원 및 정치인들에 있어 부패가 존재하고 있다고 인식되는 정도에 기초하여 각국의 부패정도를 수치화해 국가별 순위를 매긴 국가별 부패지수 보고서를 1995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다.(Transparency International, *Country Report*, <http://www.transparency.org/country>, 2014)

것이 아니고 경제전반적인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아세안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경제 전반적인 통합을 단기간에 달성하기에는 처음부터 무리였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아세안 경제공동체는 1997년 발표된 ‘아세안 비전 2020’에서 잉태되었고, 이어 2003년의 ‘발리 선언 II’에서 보다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아세안이 경제공동체를 2015년에 창설하겠다고 결정한 해는 2007년으로 공동체 창설을 불과 8년 앞둔 시기였다. 특히 아세안 공동체의 또 다른 축인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와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의 창설 청사진 보고서는 이보다 2년 후인 2009년에야 비로서 완성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아세안은 2007년 아세안공동체를 2015년에 설립하고자 선언한 것은 사실상 매우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공동체가 어떠한 형식이고 어떠한 모습이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없는 가운데 아세안의 정상들이 공동체 탄생을 선언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아세안의 과거 경제통합 실적과 연관되어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아세안은 경제통합을 이미 1970년대부터 시작하였고 1992년부터 이를 가속화하였으나 유럽연합이나 북미의 자유무역지대에 비하여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다. 때문에 아세안 정상들은 과거 경제통합이 쉽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경험을 상기하여 이러한 강력한 조치를 추진하였다고 추정할 수도 있다. 때문에 비록 2015년 아세안 경제공동체 탄생이 비록 현실적으로 도달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지라도, 이는 아세안 정상들이 아세안경제통합을 보다 가속화하려는 의지를 표출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2) 경제공동체 설립 계획 및 설계의 단계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아세안 경제통합은 서로 경제발전 단계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10개국의 경제를 통합하는 시도이다. 따라서 각국은 서로가 직면한 경제현실이 매우 다르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풀어야 한다.

아세안 각국이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첫째, 현재 각국의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둘째, 앞으로 만들어갈 공동체의 비전과 구체적인 형태 및 단계를 제시한 후, 셋째, 각 단계별로 나아갈 바를 실행하여야 한다. 물론 이때 각국 정부는 나아갈 시스템을 디자인할 뿐, 실제 통합 여부는 시장에서 각 경제주체들이 활동하는 가운데 이룩되는 것이다.<sup>40)</sup>

그러나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2015년에 아세안경제공동체 창설하겠다는 선언은 전반적으로 통합에 대한 준비가 매우 부족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각국의 제도와 현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향하는 바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구축하기 어렵게 되어 단계별 안이 매우 유동적이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청사진에서는 2015년까지 아세안의 통관시스템을 싱글윈도우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방안이 제시되었고 있으나 현재까지 진행사항으로 볼 때 10개 국가가 모두 싱글윈도우하에서 연결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sup>41)</sup> 원래 아세안싱글윈도우 구축은 각국

40) 예를 들어, 아세안 각국 간의 관세를 없애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지만 실제로 이 관세가 사라진 이후, 외국에 물건을 수입하고 수출하는 것은 기업의 활동에 속하고, 이 기업들이 수입과 수출할 물건들을 구입하는 것은 소비자의 개인활동 영역이다. 따라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다음 실제로 각국의 기업들이 얼마나 상품을 수입하고 수출하는 가 및 소비들이 국산품과 수입품을 구입하는가에 따라 실제 통합여부가 결정된다.

41) 원래 2005년 12월 발표된 Agreement to Establish and Implement the ASEAN Single

의 싱글윈도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다시 연결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으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2014년 4월 현재 아세안 7개 국가는 싱글윈도우시스템을 시행중에 있으나 나머지 3개국의 시행여부는 불확실한 실정이다.<sup>42)</sup> 각국의 싱글윈도우시스템의 구축은 새로운 제도의 구축뿐 아니라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법률 제정 등 매우 종합적인 사항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당시 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이 이루어지려면 각국의 현황 보고서와 이들의 추진에 대한 각국 보고서를 보고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나 아직까지 이들을 종합한 보고서도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예는 자본거래 활성화 및 금융발전을 위한 금융시장 통합 과정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청사진은 금융시장 통합 아세안내의 보다 자유로운 자본거래 추진이라는 형식으로 표시하였고 이는 은행, 증권 및 보험시장의 통합으로 현실화된다. 그러나 2007년 청사진이 제시되었을 때 이를 주도할 아세안 각국의 금융감독기관들은 다른 아세안국가들의 금융시장 구조나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았고, 각국의 현황을 조사결과를 갖고 있지 못하였다. 이를 종합한 보고서가 2010년에 만들어지고, 각국 금융시장의 현황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한 이후에 이러한 현실을 고려한 아세안금융시장 통합 방안이 제시하고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다.<sup>43)</sup>

---

Window 에 따르면, 아세안 각국의 싱글윈도우 구축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의 6개국은 2008년까지,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등 4개국은 2012년까지 구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자, 이를 다시 2015년으로 연장하였다. 2008년까지 실제로 싱글윈도우를 달성한 국가는 싱가포르가 유일하였다. 아세안 싱글윈도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http://asw.asean.org/about-asw> 및 Viboon (2013), Koh (2013)을 참조하시오.

42) 2014년 3월 7개국의 싱글윈도우간 통합 파일럿테스트를 성공리에 마치고 현재는 본격적인 업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43)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충열 (2011)을 참조하시오.

### 3) 경제공동체 계획 실행 단계

#### (1) 자원 부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세안 경제공동체라는 작업은 동남아 10개국의 경제를 일정한 틀로 합하는 매우 거대한 작업이다. 따라서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인적 물적 자원이 필요하게 된다.

이는 크게 두 개의 작업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각국이 협의된 내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신규로 구축하거나 기존의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관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기존 법류를 조정하는 것인 반면, 아세안 관세시스템을 통합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것이 된다.

또 하나의 작업은 각국이 추진하는 사항을 점검하고 공동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업무이다. 이는 사실상 각국의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아세안사무국이나 이 업무를 담당하는 국제기구의 역할이 된다.

현재의 시스템 하에서 아세안 국가들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기에는 인적 및 물적 자원이 매우 부족하다. 아세안 선도 국가라고 하는 아세안 6국가 중 싱가포르나 브루나이가 고소득국가이기는 하지만 인구가 작은 도시국가형태이기 때문에 관련 비용의 상당비율을 부담하기에는 역부족이다.<sup>44)</sup> 또한 나머지 4개국 역시 1인당 소득만 달러 이하의 개도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통합비용을 지불하기 쉽지 않다. 한편 저소득국가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개별 국가의 시스템 구축도 힘들어 하는 실정이다.

---

44) 싱가포르와 브루나이의 2013년 말 현재 인구는 각각 540만과 42만에 불과하다. 반면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2014년에 2억 5천만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아세안의 공동재원부담 원칙 역시 이를 어렵게 하고 있다. 아세안 관련 대부분 사업의 자금조달시 참여 국가들이 같은 금액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원칙이 준수되고 있다. 따라서 아세안이 수행하는 특정 프로젝트에서 경제규모가 크거나 영향력이 큰 한·두국가 가 공식적으로 많은 부담을 갖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가장 저소득국가의 현실을 고려하여 자금을 조달 규모를 결정하여야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아세안 사무국은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각종 경제지표 정보를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으나 매우 부실하다. 2014년 4월 말 현재 아세안 홈페이지에서 회원국의 국민소득이나 수출입자료는 2010년 자료가 제공되어 있고, 항목마저도 매우 부실한 상태이다.

한편 이 문제는 아세안사무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개별국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아세안사무국은 사실상 각국의 통계를 보고 받고 이를 하나의 기준으로 정리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하여야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통계의 품질은 각국 통계작성 기관의 통계품질에 의존하는데 실제로 일부 국가의 시스템이 매우 부실하기 때문이다.<sup>45)</sup>

이렇게 아세안각국의 일반적인 경제통계 뿐만 아니라 아세안국가들이 경제공동체 추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세부사업 관련 자료는 더욱 부실하다. 특히 청사진에 제시된 특정 사업을 추진하려면 이에 대한 아세안 각국의 제도나 현황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담당할 인적 물적 재원이 부족하다.

한편 이러한 문제점은 아세안 경제공동체 추진사업에서 특히 여

45) 예를 들어, 국가통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국민계정에서 라오스의 경우에는 산업별 국내총생산은 추정이 되나 지출부분별 국내총생산은 추정되지 않는다.

러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추진하여야하는 사업에 있어서 더욱 심각하다. 모든 국가들이 이들 사업에 공통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을 지출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아세안 공동체 추진위하여 시도되는 많은 재원이 아세안내부가 아닌 다른 국가로 부터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2013년에 실시된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이행사항에 대한 점검효과분석은 아세안사무국의 인력 및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프로젝트의 청사진을 작성하는 보고서 관련 예산 역시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지원 하에 이루어졌다. 또한 각국이 설립한 싱글윈도우를 통합하는 시범사업은 미국정부기관인 USAID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아세안경제공동체 창설을 위한 주요 시스템 구축 공동사업이 자체재원조달 실패로 국제기구나 선진국 정부로부터의 지원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세부 추진 일정은 점점 더 늦어지게 되었다.<sup>46)</sup>

## (2) 경제공동체 건설의 컨트롤 타워 및 제재수단 미확보 문제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건설은 아세안 10개국이 많은 분야에서 협력하여 새로운 형태의 협력체를 구성하는 매우 엄청난 작업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 점검하고 추진하는 주체는 매우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아세안 경제공동체 건설하는 과정을 점검하는 기구는 아세안사무국이고 특히 사무국내 아세안 통합 모니터링 오피스 (ASEAN

46) 아세안들은 일단 자신들이 먼저 해당사항을 추진하도록 노력한 뒤 이것이 어려워질 경우 국제금융기관이나 선진국에 지원을 요청한다. 그러나 국제기구 역시 관련 업무를 추진할 때, 프로젝트 제안과 심의 및 예산배정 등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지나가게 된다. 예를 들어, 아세안금융시장 통합안을 도출하는 연구가 원래 2009년 1월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자금조달 문제로 2010년 2월에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Integration Monitoring Office, AIMO)가 이를 중점적으로 담당한다. 이는 2008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경제공동체 건설과정을 점검할 인력을 아세안내에 보충하기로 결정한 이후, 2010년 5월 아세안 재무장관회의에서 기존 아세안 경제공동체국 내의 Macroeconomic and Finance Surveillance Office를 ASEAN Integration Monitoring Office (AIMO)로 확대하면서 설립되었다. AIMO는 아세안의 경제공동체의 탄생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보고하는 기구의 역할을 하게 되어 2013년 처음으로 세계은행과 함께 *ASEAN Integration Monitoring Report*를 작성하는 성과를 보여주었다.(ASEAN and World Bank, 2013)

그러나 이 업무를 수행하는 AIMO의 역량과 역할 및 미션을 비교하여 보면 AIMO의 적절한 역할수행 가능성이 매우 부정적으로 보인다. AIMO는 국장급 1인과 과장급 2인 및 부과장급 8인 등의 규모로 구성되어 있다. 때문에 이들이 수많은 사업의 진행과정에 참여하여 각각의 진행사항을 점검하기에도 너무도 부담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아세안 경제공동체 형성의 주요 부문인 서비스 및 투자 부문에서는 1인의 담당자가 각종 서비스 관련 규제완화 사항 및 비관세무역장벽을 점검하고 있으며, 금융부문 역시 1인의 담당자가 은행, 증권, 보험, 지급결제 등 전 분야의 진행사항을 다루고 있다. 각각의 부문이 여러 개의 주제를 갖고 있고 각 주제는 소부문이나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있으며, 각 소 부문이나 워킹그룹이 분기 혹은 반기에 관련 회의를 수행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며 협의사항을 도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몇 명되지 않은 AIMO 직원들이 이 모든 것을 모두 감당하기에는 인력 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AIMO가 2013년 처음으로 발간한 *ASEAN Integration*

*Monitoring Report*는 AIMO가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실시하여 발표한 보고서이다. 실제로 AIMO는 인력 및 자원부족으로 독자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인적 물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계은행이 파트너로 활용된 것이다. 또한 *ASEAN Integration Monitoring Report*에 포함되면서 통합성과를 가장 잘 보여주는 스토아카드 역시 AIMO의 위탁을 받아 ERIA가 작성하고 있는데 이 스코어카드 역시 정기적으로 발표되지 못하고 있다.(ERIA 2012, ASEAN 2010, ASEAN 2012a)

마지막으로 아세안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해당국이 합의한 준수하기로 약속한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뚜렷한 제재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아세아 경제공동체는 ASEAN-x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각국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초하기 때문이다.<sup>47)</sup> 때문에 각국은 자국의 국민들이나 특정 집단에게 부담이 되는 협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아세안은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5년 경제공동체창설을 위하여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각국들은 각종 위원회를 새롭게 만들고 청사진이 제시한 준수사항을 충실히 따르려

47) 아세안은 합의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아세안은 ‘부분적 탈퇴’의 관행을 형성해 왔다. 이는 1980년에 싱가포르의 리관유 총리가 합의제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아세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5-x 방식의 도입을 제창하면서 시작되었고, 그 후 회원국이 10개 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ASEAN-x’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때 x는 동의하지 않는 회원국 수를 말하는 것으로 아세안에서 결정된 결정사항이 이 x 국가를 제외하고 추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합의제 방식에서 부분적 탈퇴라는 예외를 인정하게 된 것은 반대하는 국가까지 구속하려는 방식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그러한 국가를 구속하지 않고 나머지 국가들만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은 실제로 아세안의 무역증진과 규제완화 등 여러 부문에서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아세안 스코어카드나 각종 경제지표를 분석한 결과, 아세안은 경제공동체 창설을 위하여 많은 일을 추진하였고 이 과정에서 아세안은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누린 것이 밝혀졌다. 단기간에 아세안이 이렇게 성과를 보인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수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이 2015년에 경제공동체를 창설할 것이라는 것에 회의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실제 공동체의 모습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아세안경제공동체라는 개념 설정의 문제점이나 및 아세안이 갖는 지배구조적인 한계, 아세안 경제공동체 창설의 계획수립 단계 및 시행단계에서 발생하였던 각종 문제점 등에 종합적으로 기인한 것이다.

때문에 이는 단기적인 문제보다는 장기적으로 아세안이 풀어야 할 숙제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아세안 저개발국가들이 각종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큰 부담을 갖지 않고 출연할 정도로 경제발전이 이루어지거나 기본적인 경제인프라를 확보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각국의 정치 및 사회민주화가 이루어져 어느 정도 성숙되어 아세안내의 지배구조나 의사결정구조가 개선되려면 수십 년의 시간이 소요될 지도 모른다.

따라서 아세안이 2015년에 창설한 경제공동체가 보다 진일보된 경제공동체가 되려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공동체 탄생과 발전을 디자인해야 한다. 이제부터 아세안과 각국 정부는 2015년 공동체 창설 이후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경제공동체 창설이 불과 1년 8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한편 경제공동체 창설 이후의 새로운 경제통합을 추진할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동안 아세안이 겪었던 많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보다 정밀하고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 경제공동체 탄생의 문제점을 계획수립단계와 진행 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향후 새로운 경제통합을 추진할 때 각 단계에서의 예상 문제점을 살펴보며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유럽의 경험을 보다 연구하면서 아세안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공동체 탄생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2014년 7월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는 *ASEAN 2030: Toward a Borderless Economic Community* 보고서를 통하여 2030년에 도달하여야 할 보다 발전되고 통합된 아세안경제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비록 이는 아세안내부의 연구결과나 정책이 아니고 학술적인 연구에 불과하고 이들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 역시 거시적인 지표나 환경 변화 등에 집중하였고, 사업별, 진행단계별 문제점의 분석 등을 시도하지 않아 향후 새로운 전략 수립에는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는 향후 아세안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위하여 공동체 달성 이후를 준비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어려움이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이 창설 이후 지역경제협력체로서 이룩한 성과는 매우 괄목할 만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아세안은 이를 지속할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도 상당부분 사실이라는 점도 인정할 수 있겠다.

**주요 주제어:** 아세안경제공동체, 아세안, 경제통합, 스코어카드

〈참고 문헌〉

- 강대창 · 박나리 · 유현석 · 김형중 · 이동윤, 『ASEAN의 의사결정 구조와 방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략지역심층연구 11-06, 2011
- 강대창, “2015년 ASEAN 경제공동체(AEC) 추진 배경과 향후 전망,” A paper presented on the Seminar on *the ASEAN Economic Community: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 11 February 2014, Seoul, Korea
- 박변순, “아세안경제협력의 진화와 평가,” 『동남아시아연구』 23권 2호, 2013년
- 양승윤, “동남아의 역내갈등: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영토분쟁을 중심으로,” 『아시아연구』 제9권, 2006
- 이충열,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 현황과 통합가능성,” 『동남아시아 연구』 21권 3호, 2011년
- ADB, ARIC Data Base, <http://aric.adb.org/integrationindicators>
- ADB, *The Road to ASEAN Financial Integration, March*, 2013
- ADBI, *ASEAN 2030: Toward a Borderless Economic Community*, July, 2014
- American Chamber Singapore, *ASEAN Business Outlook Survey*, 2014
- ASEAN, *Annual Report*, Various Issues
- ASEAN, Chairman’s Statement of the 13th ASEAN Summit, “One ASEAN at the Heart of Dynamic Asia,” Singapore, 20, November 2007
- ASEAN, *ASEAN Economic Community Blueprint*, November, 2007
- \_\_\_\_\_. “Agreement on the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Scheme for the ASEAN Free Trade Area,” January, 1992

- \_\_\_\_\_. “The Asean Declaration (Bangkok Declaration) Bangkok,” 8, August, 1967, <http://www.asean.org/news/item/the-asean-declaration-bangkok-declaration>)
- \_\_\_\_\_. *ASEAN Economic Community Scorecard: Charting Progress Towards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Jakarta: ASEAN Secretariat, March, 2010
- \_\_\_\_\_. *ASEAN Economic Community Scorecard*, Jakarta: ASEAN Secretariat, March, 2012a
- \_\_\_\_\_. *ASEAN Integration in Services Jakarta*, Jakarta: ASEAN Secretariat, September, 2013
- \_\_\_\_\_. *ASEAN Investment Report 2012*. Jakarta: ASEAN Secretariat, 2012b
- \_\_\_\_\_. ASEAN VISION 2020, 15 December, 1997  
<http://www.asean.org/news/item/asean-vision-2020>
- \_\_\_\_\_. “Bali Declaration on ASEAN Community in a Global Community of Nations : Bali Concord III”, 17 November, 2011.
- \_\_\_\_\_. *Roadmap for an ASEAN Community 2009-2015*. Jakarta: ASEAN Secretariat, 2009
- ASEAN Committee on Consumer Protection, <http://aseanconsumer.org/about/>
- \_\_\_\_\_ and World Bank, *ASEAN Integration Monitoring Report*, 2013
- ATKearney and JWT, *Countdown to 2015: Creating ASEAN Champion*, 2013
- Chia, Siow Yue, “The ASEAN Economic Community: Progress, Challenges, and Prospects,” *ADB Working Paper Series No.*

- 440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December, 2013
- Chaojirapant, Viboon, "The ASEAN Regional Single Window - and lessons we can learn from it," Mimeo September, 2013
- Das, Sanchita Basu, Jayant Menon, Rodolfo Severino and Omkar Lal Shrestha, *THE ASEAN Economic Community: a work in progress*, ADB and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2013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Democracy index 2012*, 2013
- ERIA, <http://www.eria.org/>
- ERIA, "Mid-Term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of AEC Blueprint," October, 2012
- European Commission, Single Market Scoreboard, No. 1, November, 1997
- Hu1, Albert G. "ASEAN Economic Community Business Survey," in Das, Sanchita Basu, Jayant Menon, Rodolfo Severino and Omkar Lal Shrestha. *The ASEAN Economic Community: a work in progress*, 2013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http://www.imf.org/external/ns/cs.aspx?id=28>
- Koh, Jonathan and Andrea Mowerman, "Towards a Truly Seamless Single Windows and Trade Facilitation Regime in ASEAN Beyond 2015," *ERIA Discussion Paper Series 2013-29*, October 2013
- Pillai, Subash Bose, *ASEAN Economic Community - Progress and Challenges*, Norway - Asia Business Summit 2013, April, 2013
- Milliman, *ASEAN Economic Community Survey*, February, 2014
- Rillo, Addin D., "AEC Scorecard: The Road to ASEAN Single

- Market,” Conference on Network of Reformers, 4 February 2011, Mombasa, Kenya
- Rillo, Addin D., “Monitoring the AEC: Update and Challenges” ASEAN Roundtable 2012, May 25, 2012 Singapore
- Shahriar, Kabir and Ruhul A. Salim,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ASEAN How Far Will It Go?” *Journal of Southeast Asian Economies* Vol. 31, No. 2 2014
- Sirivunnabood, Pitchaya, “ASEAN Economic Community: From Perspective of Korea,” A paper presented on the Seminar on the ASEAN Economic Community: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 11 February 2014, Seoul, Korea
-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untry Report*, 2014
- Transparency International, <http://www.transparency.org/country>, UNCTAD FDI Statistics database, [http://unctadstat.unctad.org/ReportFolders/reportFolders.aspx?sRF\\_ActivePath=P,5,27&sRF\\_Expanded=P,5,27](http://unctadstat.unctad.org/ReportFolders/reportFolders.aspx?sRF_ActivePath=P,5,27&sRF_Expanded=P,5,27)
- Wong, Marn-Heong and Andre Wirjo, *The 2013 ASEAN-BAC Survey on ASEAN Competitiveness is*, ASEAN Business Advisory Council (ASEAN-BAC), June, 2013

(2014.05.30투고, 2014.07.14심사, 2014.08.12게재확정)

<Abstract>

## ASEAN Economic Community: Is It a Dream or Reality?

LEE Choong Lyol  
(Korea University at Sejong)

We review the recent development of ASEAN Economic Community and try to evaluate it. At first, we check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ASEAN economic community and later examine what ASEAN did to build its economic community for the past decade. For this purpose, we investigate score card of ASEAN integration and several economic indicators including intra-trade volumes. In addition, we reviews the several survey result done by various economic agents across the country. From this comprehensive analysis, we support the view that the building procedure of ASEAN economic community by 2015 is behind the schedule and that this view is also quite widely acknowledged by many economic agents. To find the reasons for this problem, we investigate the detailed integration process of several sectors. We think that it may be caused by fundamental problems of ASEAN member countries such as wide disparity of economic size or personal income of each member country. At the same time, idealistic and unrealistic and less concrete plan also can be another reason for it. Despite all these problems, we cannot

deny that ASEAN builds a very remarkable achievement for advancing its economic integration and cooperation for the past decade and that it should be evaluated very positively.

***Key words:*** ASEAN Economic Community, Score Cards, Survey

〈부록 1〉 아세안내 아세안 경제공동체 성공에 대한 주요 설문조사 결과

본 부록은 아세안내의 시장참여자들이 아세안경제공동체 성공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 가를 알아내기 위하여 아세안내에서 조사한 다양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았다. 이는 대체로 아세안내의 기업들에 실시한 4개의 설문조사로 아세안경제공동체의 탄생에 대한 성공가능성과 이들 기업들이 아세안경제공동체 탄생을 어떠한 시각으로 보는 가에 대한 설문조사로 구성되었다.

먼저 Th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ISEAS)는 2011년 12월 - 2012년 3월까지 아세안내의 381개 기업을 대상으로 아세안 경제공동체 탄생 이해도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하였다.(Hu1, 2013) 이때 ISEAS는 각국의 컨설턴트를 접촉하고 이 현재 컨설턴트가 해당국의 40개 기업을 선정하여 이 설문서를 제공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서를 받았다. 이들 381개 기업중 142개는 제조업 기업이었고 224개는 서비스업종에 속하였다

이들 기업에게 2015년 아세안 경제공동체가 탄생할 것인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는 가를 물었을 때 44%가 알고 있다고 답하였고, 55%는 알고 있지 않다고 답하였으며 1%를 답변을 하지 않았다. 국가별로는 알고 있다고 답한 기업비율이 캄보디아(74%), 라오스(73%), 태국(70%), 미얀마(64%)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 싱가포르(14%), 필리핀(20%), 인도네시아(23%), 베트남(24%), 부루나이(19%)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JWT and A.T. Journey (2013) 는 2013년 7월 14~9월 22일 동안 50명의 아세안내 기업 경영진들에게 아세안 경제공동체 형성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sup>48)</sup> 설문결과에 따르면 많은 기업들이

---

48) 이들은 JWT의 온라인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이때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의 32퍼센트는 기업대표이었고, 18%는 기업의 마케팅담당

아세안경제공동체가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답변하였고 60%의 기업들은 아세안경제공동체가 탄생하면 아세안내 주변 국가에 새롭기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고, 58%는 아세안경제공동체가 그들의 업무에 매우 큰 영향을 줄 것이고, 20%는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총 97%는 이것이 자신들의 업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답변하였다.

그리고 비록 아세안경제공동체 탄생의 목표연도가 2015년 말이지만 2018년이나 되어야 자신들이 이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이는 주로 공급네트워크 확대(46%), 분배채널(38%), 수출물류개선(40%) 등의 효과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경제통합은 이미 시대의 흐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없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ASEAN Business Advisory Council (ASEAN-BAC)이 2013년 5월~8월 사이 아세안내의 대표기업들 502개 기업에 설문서를 받아 정리하였다.<sup>49)</sup> 이중 72%의 기업이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의 기업이었고, 85%의 기업이 아세안국가에 본점을 갖고 있는 기업으로 49%가 소기업이고, 23%가 중기업, 28%가 대기업으로 구분되었다.<sup>50)</sup>

이들에게 아세안 경제통합에 대한 정부정책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오직 2%가 자세하게 알고 있다고 답하였고, 상당히 알고 있다는 답변이 17%, 일반적인 정도라는 답변이 42%로

임원이었다. 한편 75% 내외가 아세안에 본점을 두고 있는 기업이었고 나머지 25%는 유럽과 미국, 동북아시아에 본점을 두고 있는 기업이었다.

49) ASEAN Business Advisory Council (ASEAN-BAC)은 2001년 7차 아세안정상회담 시 설립이 제안되어 2003년 아세안 사무국에 설치된 기구이다. ASEAN-BAC의 주된 임무는 아세안경제공동체 탄생을 위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특히 아세안경제협력 추진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의견과 견해 등을 정부에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50) 기업규모분류는 기업의 근로자수에 따라 구분되었다. 근로자수 50% 이하는 소기업, 50~200인이면 중기업, 200인 이상이면 대기업으로 분류되었다.

서 대체로 약 61%가 아세안 경제통합에 대하여 대체로 일반적인 수준의 정보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한된 정보를 갖고 있다가 32%, 전혀 정보가 없다는 답변이 7%를 차지하였다.

한편 아세안 경제공동체가 2015년에 탄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6%가 전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26%가 대체로 불가능하며, 45%가 어느 정도 가능하고, 21%가 매우 가능하며, 2%가 확실히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비록 전반적으로 성공 가능성에 대하여 확실하게 생각하는 기업들의 수가 아직까지 23%에 불과하나 2010년 유사한 질문을 하였을 때, 오직 10%만이 유사한 답변을 한 것에 비하여는 크게 상승한 수치이다.

다만 이들에게 아세안 경제공동체가 새로운 위협이 될 것인가 아니면 기회가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였을 때, 위협의 가능성이 매우 낮음(19%), 낮음(36%) 보통(28%), 높음(13%), 매우 높음(4%) 이고, 기회의 가능성은 매우 높음(12%), 높음(45%), 보통(35%), 낮음(6%), 아주 낮음(2%)로 많은 기업들이 위협의 가능성이 낮고, 기회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세안 경제공동체 관련 정책들이 기업들의 수출이나 해외 직접투자 확대 전략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매우 중요(9%), 아주 중요(24%), 대체로 중요(39%), 중요도 낮음(12%), 중요도 아주 낮음(7%)으로 많은 기업들이 기업 전략에 이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세안 청사진에 제시된 정책들의 실시사항을 16개 항목으로 구성하여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관세 인하에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제시하였다.<sup>51)</sup>

51) 16개 항목은 5점만족 척도로 만족도를 표시하였는데 이중 관세축소에 3.36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정보제공에 2.97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한편 관련기업들에게 아세안 경제공동체 탄생시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을 물어보자, 가장 많은 답변이 아세안 각국의 규제나 경영환경이 매우 차별화된 가운데 다른 국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타 국가에서 기업활동하기 매우 어렵다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많은 아세안내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없다면 해외진출이 매우 어렵다는 답변을 하였다. 특히 각국의 관세나 통관제도, 아세안경제공동체관련 협의사항 등에 대한 최신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미국 기업가협회 싱가포르 지부가 2013년 5월 10일~6월 10일까지 한 달 동안 아세안내 미국 기업 475개에 아세안 경제공동체 탄생에 대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결과 2015년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에서 52%가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변하고, 오직 23%만이 달성할 것으로 답변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25%는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유보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한 응답자들의 59%는 2020년이 넘어야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답변하였다. 이때 2016년은 1%, 2017년 6%, 2018년은 25%, 2019년은 9%로 각각 답변하였다.

